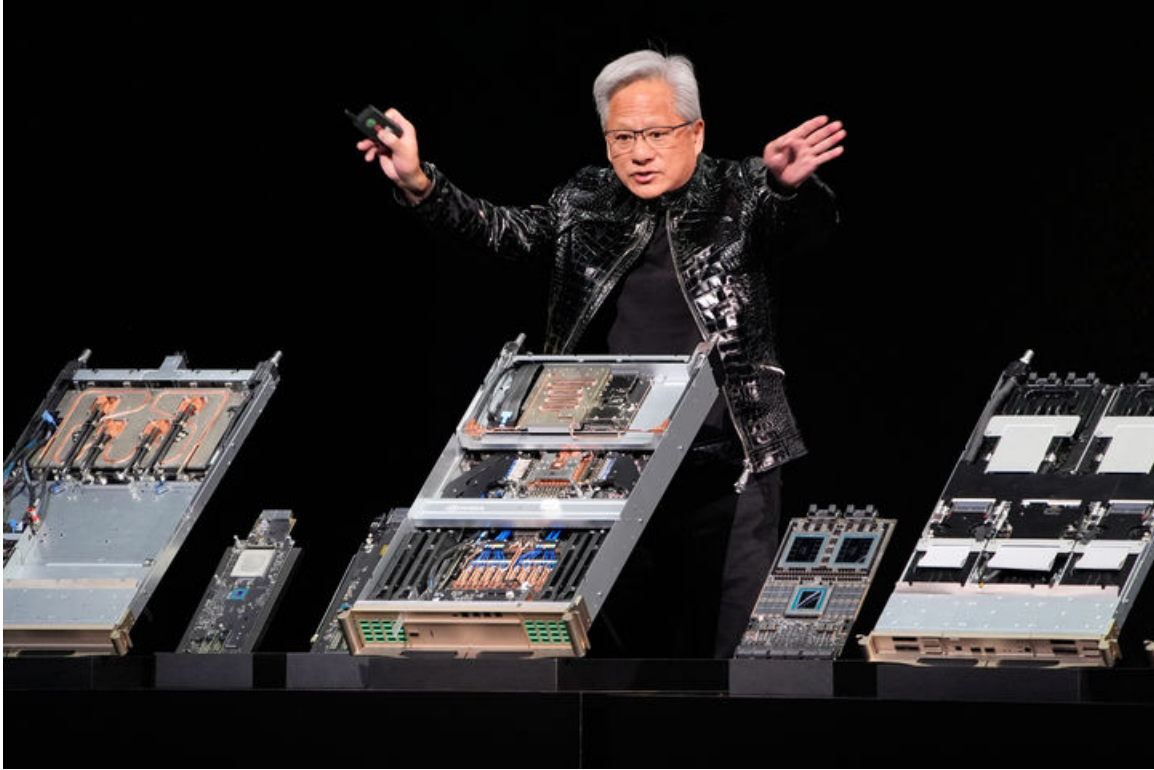


젠슨 황, 내일 오후 5시 김포공항 입국...총수들 만난다

등록 2026.06.04 14:41:46 | 수정 2026.06.04 14:47:48



[라스베이거스=AP/뉴시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5일(현지 시간)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폰텐블로 호텔에서 세계 최대 IT·전자 전시회 'CES 2026' 개막을 앞두고 열린 엔비디아 라이브에서 '엔비디아 루빈' 인공지능(AI) 슈퍼컴퓨팅 플랫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01.06.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5일 오후 5시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젠슨황 CEO는 5일 오후 5시께 김포공항 비즈니스터미널(SG BAC)에 도착한다.

젠슨 황 CEO는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엔비디아 개발 콘퍼런스(GTC) 일정을 마친 후 국내로 이동한다.

방한 기간 젠슨황 CEO는 국내 주요 기업 총수와 경영진, 연구진, 스타트업 관계자 등을 잇달아 만난다.

입국한 이후에는 서울 성수동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최태원 SK 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회동한다.

또한 오는 7일에는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베어스와 키움히어로즈 경기 시구도 나설 예정이다.